

교회소식

- 2019년부터 10시에 본당에서 영어 예배로 드립니다.
- 2019 단기선교
 - 일정/장소: 2월18일(월) - 22일(금)/ 혼두라스 라스플로레스
 - 선교팀: 이민영, 김종환, 김현정, 김동수, 이영순, 서영수, 한주루, 구자금, 권혜순, 송은주, James Lee, Edwin Kim, Injoo Park, Kevin Choi, 나유빈, 나울, 최하늘, 최하람, 최하은
 - 오늘 친교후 소예배실에서 선교팀 모임을 갖습니다.
- 오늘 예배 직후 담임목사실에서 구역장님들 잠깐 모여 주십시오.
- 오늘 친교 후 예결산위원회로 모입니다.
- 이번 주부터 대심방 시작합니다. 심방일정표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회 주소록을 만들기 위해 가족 사진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 친교 후 미디어팀이 촬영합니다.
- English Service와 주일 예배의 설교는 Podcast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 English Service Podcast: English Worship Service @ Sekwang
 - 주일 설교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섬기는 사람들

1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대표기도: 김병규 집사 (시 36:5-10)
이번 주 친교: 한주루 권사, 최문자 권사
다음 주 친교: 임미숙 집사, 하영미 집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솔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3월개강)	여성반	수 10am / 소회의실
	가족반	목 8pm / 대회의실
	남성반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교역자

담임목사: 이민영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교육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060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	“All Who Are Thirsty”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	Together
Word of God -----	Matthew 16:13-16 ----- Pastor Kim
Sermon -----	“ Knowing the Speaker ” -----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	Leader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	
*찬송 -----	149장(통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 다함께
Hymn -----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대표기도 -----	시편 29 ----- 김동수 집사
Prayer -----	Psalms 29
찬양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 세광 찬양대
Anthem -----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	
성경봉독 -----	이사야 40:1-11 ----- 인도자
Word of God -----	Isaiah 40:1-11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	
설교 -----	“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 ----- 이민영 목사
Sermon -----	
*찬송 -----	497장(통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 다함께
Hymn -----	I Love to Tell the Story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1-11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사야에서 새로운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징계에 집중하던 1-39장과 이제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40장 사이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위로하다’는 동사는 ‘돌이키다’라는 동사와 같은 어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40장 이후를 후기 이사야라고 부르며 마치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썼다고까지 추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새 마음을 먹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벌을 배나 받았”으니 이제는 위로하라고. 그 노역의 때와 징벌의 기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바로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범죄하여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까지 버리지 않았습니. 노역의 때 벌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긍휼로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니 진짜입니다. 뜬금없는 새 목소리가 아니라 여전히 묵소리로 새 은혜를 주시니 담대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 안 듣는다, 안 될 거라 하지 말고 빈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처럼 성전을 떠난 여호와와 영광은 포로들이 살고있는 오욕의 땅을 향해 옮겼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광야에 난 대로를 지나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비토록 외치라 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와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범죄한 땅 이곳에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요 1:14).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 노역하셨고 벌을 받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요 19:30).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과거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범죄한 백성이지만, 여전히 포로이지만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라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새로운 상황을 간절히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낯설고 새로운 신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포로의 땅에 함께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위로하라고, 목소리를 높여 그 영광을 선포하라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까? 새로운 은혜는 멀리 있지만 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시다.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구함시다. 광야에도 여호와와 영광의 대로가 있습니다. 골짜기와 산들이 물러가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어둠이 질수록 빛이 분명한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보입니다. 장차 오셔서 다스리시며 보응하시겠지만, 이미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품에 안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전과 다른 은혜의 새 목소리, 전과 다른 새로운 상황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사 43:19).

Memo